

■ 2026 새해설계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 “착한도시 서구 완성…미래 준비하는 전환점”

골목페이 페이백·공공배달앱 지원…골목 자생력 강화  
24시간 돌봄 등 통합돌봄 고도화·정원문화 도시 조성

“골목에는 활동이, 집안에는 돌봄의 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착한 경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밟자고 나아가겠습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민선8기 주민과 함께 만들어 온 ‘착한도시 서구’를 완성하고, 새로운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이것이 밝혔다.

김 청장은 2026년을 ‘착한도시 서구’ 완성의 해로 정하고 ‘착한 경제도시’, ‘완성형 통합돌봄’, ‘생활 속 정원문화 도시’를 3대 핵심 구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서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골



비를 촉진하고, 골목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서구형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오는 4월 ‘돌봄

는 24시간 돌봄 체계와 신속한 의료 연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권역별 통합건강센터와 연계한 공공의료돌봄 모형을 정착시켜 주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아너스’를 중심으로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인적 안전망을 더해 1년 365일, 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도시를 실현한다.

서구는 또 삶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생활 속 정원문화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삶·일·여가가 15분 생활권 안

에서 조화롭게 연결되는 ‘15분 정원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머물고 소통하는 생활 플랫폼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악전수관을 거점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 한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마을자

치’ 실현에 나선다.

각 동의 고유한 이야기와 특색을 담은 ‘마을 BI’를 주민의 자부심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6년에는 양동 다목적센

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다목적센터, 벚꽃 어울림센터, 농성1동 건강지원센터가 잇따라 준공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미래를 그리는 자치 공간이 건강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는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이웃에게 번지는 행복 공동체이자 법과 원칙을 지키는 주민이 존중받고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정의로운 포용도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6년은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와 연대의 성과를 일상 속 변화로

완성해 가는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금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소송 패소

법원 ‘보상휴가제’ 인정…“상여금 확정 임금 아냐”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자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이자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4조 3교대 근무제로 일하며 매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2시간 많은 42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후불 임금 성격을 지난해 설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1인당 160만~450만원과 지연손해금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무 형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임금 지급 방

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산기능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로 인해 원고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주당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13일을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여금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 체계가 변경됐고, 명절 상여금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사합의에 따라 2022년 설 상여금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미국 배식 봉사하는 임택 동구청장 새해를 맞아 8일 광주 동구청 구내식당에서 임택 동구청장이 직원들에게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꾸며진 구내식당에 라면조리기 등을 갖춘 ‘동구리면집’을 설치·운영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주말 광주·전남에 ‘대설·강추위’ 예고

주말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강한 눈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기압골 전면에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기끔 비가 내리겠다. 이후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전망이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진

눈깨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0일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에 2~7cm,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다. 특히 10일 밤에는 시간당 1~3cm, 늦은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다.

이번 눈은 11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기차로 형성된 구름대와 상층의 찬 공기 영향이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광주 가로수 40% 생육 환경 ‘열악’

광주환경운동연합 보고서…‘보통 이하’ 판정

광주 도심 가로수의 40% 정도는 생육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녹지의 핵심 축인 가로수가 노후화와 관리 부실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가로수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5개 자치구의 가로수 2679그루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1.7%가 ‘보통 이하’ (3~5등급) 판정을 받아 생육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가로수의 수종과 규격(흉고직경·수고·수관폭), 줄기·가지 상태 등 건강도, 보호를 유무와 지주대 상태 등 생육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32.5%로 가장 많았고, 이팝나무(22.1%), 느티나무(18.2%), 왕벚나무(13.9%)가 뒤를 이었다. 특정 수종에 편중돼 가로수 다양성이 매우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조사 대상 가로수 대부분은 평균 수고 8~9m, 흉고직경 30~40cm에 이르는 수령 20~30년 이상의 중견급 나무로, 도심 기후 조절과 탄소 흡수 등 도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 부족, 부적절한 전정, 지주대·와이어 밀립 등 열악한 관리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와 남구에서 은행나무 손상률이 특히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와 광산구는 와이어 밀림 문제가 심각했다. 서구는 은행나무 가지 전정 등 전반적인 관리 부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공공 건설공사 사고, 국가 안전시스템 실패”

#### 민주노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토론회

최저가 낙찰·단축 공기 밸주 구조가 참사 불러  
“책임은 현장에 권한은 밸주자에…구조적 모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참사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니라, 공공 건설공사 전반에 고착된 밸주 구조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패가 빚어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시민마루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

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평택 국제대교,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등 반복되는 공공건설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책임은 현장과 기술사에게 집중되는 반면, 공정과 예산을 결정하는 밸주자는 안전사고의 실질적 책임에서 베껴 서 있다”며 “순환 전보 위주의 행정 구조로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역시 축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공기 압박이 곧 안전 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 현장의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도 “공사 원가가 충분히 반영돼도 그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광주시가 사고 초기에 달리 점검 책임에서 물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TF 형식의 사고대책 위원회 구성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옥상층 슬레이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